

“변화해야 살아남는다”... ‘리뉴얼’ 나선 대형마트

롯데마트 상무점, 21년만에 개선공사... ‘창고형’ 도입 고민 12월 재개장 롯데마트 여수점, 백화점 아울렛 결합한 상권 특화형 ‘롯데몰’로 재탄생 이마트 봉선점, 연내 리뉴얼...롯데백 광주점 8~10층 리빙 원스톱 개편

호남지역 첫 롯데마트 점포인 ‘롯데마트 상무점’이 개점 21년 만에 대대적인 개선공사(리뉴얼)를 벌인다.

내년 개점 15주년을 맞는 이마트 봉선점도 연내 개편에 들어가며,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개층에 걸친 ‘프리미엄 리빙 전문관’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6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상무점은 오는 22일까지 영업을 한 뒤 개선 공사를 위한 휴업에 들어간다.

롯데마트 상무점은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병원 등이 밀집한 상무지구 ‘황금 상권’에 지난

2000년 9월 문을 열었다.

영업면적 1만3223㎡(4000평) 규모로, 직접 고용인력 30명을 포함해 약 350명이 근무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소비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선공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상무점은 오는 22일까지 영업을 한 뒤 이달 중으로 개선 방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롯데가 만든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형태로 탈바꿈시키자는 개선안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 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빅마켓은 국내·외 3000가지 상품을 국내 최저가격 수준으로 판매한다는 점을 내걸

고 있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하는 연말까지 롯데 직접 고용인력은 광주지역 인근 점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상무점에 입점한 입차매장 13곳은 입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영업을 끝내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0년 상무점을 시작으로 처음 광주·전남에 진출한 이후 2002년 9월 점포점을 내는 등 현재까지 총 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 여수점은 5개월 공사를 거쳐 백화점·아울렛과 결합한 상권 특화형 ‘롯데몰 여수점’으로 새 단장에 지난 5월 문을 열기도 했다.

가을을 맞아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남상매장 개편을 추진했고,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3000㎡(900평) 규모 ‘키즈&패밀리 전문관’을 지난달 새로 선보였다.

올해 개점 23주년을 맞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월 프리미엄 식품관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프리미엄 리빙 전문관’을 선보이며 11년 만의 개선공사를 마무리한다.

롯데백화점은 8층 생활 전문관, 9층 가전 전문관, 10층 프리미엄 인테리어 브랜드관을 조성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를 한 곳에서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 선보이는 8층 생활 전문관에서는 가구와 홈패션, 주방, 식기 등 다양한 부문을 만날 수 있다. 10층 프리미엄 인테리어 브랜드관은 지난달 29일 착공한 뒤 오는 11월 문을 열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번 개편을 통해 ‘탈프로렌 홈’ ‘피터리드 홈’ ‘휴고보스 홈’ 등 미국·유럽 유명 홈패션 브랜드를 지역에서는 최초로 들인다.

히먼필러, 루이스폴센, 비트라, 아르텍 등 고급 수입가구 전문매장인 ‘비블리오펜드’도 광주에서 처음 선보인다. 이탈리아 가구 ‘까르텔’과 ‘까사알렉시스’도 입점한다. 최근에는 예능방송에 나온 뒤 입소문을 탄 생활 브랜드 ‘오렌세다아네트’가 지역

에서는 단독 입점했으며, 기존 가구 브랜드는 수천 만원을 호가하는 상품 고급화가 추진됐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8층부터 10층까지 한 번에 생활 관련 모든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 최대 프리미엄 리빙 전문관이라는 입지를 굳힐 방침”이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이마트 봉선점도 연내 리뉴얼을 벌일 계획이며, 이마트 광주점(서구 광천동)은 지난 연말 14년 만의 개선 공사를 마쳤다.

올해 4월28일 영업을 종료한 광주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 동광주점은 공실 활용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연면적 1000평(3305㎡) 미만 이마트 동광주점은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호아파트 상가동(지하 1층-지상 일부)을 분양받은 ‘자가 점포’이었다.

광주·전남에 남은 이마트 점포는 광주 3곳·전남 3곳으로 광주점을 제외하고 모두 자가 점포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다가오는 추석 한숨 쉬는 中企...55.8% “자금 사정 어려워”

34%만 상여금 지급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26일 중소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5.8%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5.3%, ‘보통’은 28.9%였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매출 10억원 미만은 86.7%에 달한 반면 200억원 이상은 28.9%에 그쳤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는 판매·매출 부진이 78.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53.0%), 인건비 상승(25.7%), 판매대금 회수 지연(21.3%) 등의 순이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데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9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올해 추석에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은 평균 3억7800만원, 이 중 부족한 자금은 476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12.6%였다.

추석 상여금(현금)의 경우 34.2%만 지급 예정이라고 답했다. 21.3%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13.1%는 경영난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3%는 연봉제 실시(연봉에 상여금 포함 등)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여금을 정률로 지급하는 업체는 기본급의 평균 63.2%, 정액으로 주는 업체는 평균 45만3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휴무 계획은 평균 4.8일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기관 및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

‘코로나시대,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 수급 정책’ 토론회

농촌경제연구원, 9일 오후 2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코로나 시대,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의 네 번째 순서이다.

토론회는 농촌경제연구원과 대통령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1부는 ‘국민 모두의 건강한 하루 한 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선임 부소장이 ‘먹거리 체계의 전환과 먹거리 보장 정책의 설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임승수 고려대학교 교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미래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 2부에서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가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최병욱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자 역할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이어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의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03.33 (+2.27)
▼ 코스닥	1052.96 (-0.89)
▲ 금리(국고채 3년)	1.459 (+0.022)
▼ 환율(USD)	1156.50 (-0.50)

사학연금, PEF 위탁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 등 4곳 선정 4개 기관에 각 500억원 출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내 사모펀드(PEF)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스틱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맥쿼리자산운용,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출자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4개 위탁운용사에 각 500억원이 출자된다.

사학연금이 지난 7월 초 제안서 접수를 시작한 뒤 총 11개 운용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1차 정량 평가를 거친 8개사 가운데 현장실사와 투자심의위원회의 정성평가(PT)를 통해 4개사가 최종 확정됐다.

사학연금 측은 이번 선정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 추진 성과와 노력에 대한 가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탁소 ‘칼 주름’ 어렵지 않아요”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9층 ‘테팔’ ‘브라운’ 매장서 집에서 간편하게 의류 ‘칼 주름’을 잡을 수 있는 증기 기구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